

# 光日春秋

전 흥 택



우리나라는 건국 6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세계적으로 드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진화'이다.

'선진화'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모든 면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결국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한 제도와 정책이므로 결국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수준의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가전체의 정책능력이 요구된다.

국가 정책능력은 정책의 기획·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 NGO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연구시스템의 총체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책연구시스템

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정책연구시스템에서 정부와 국회는 정책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두 개의 축

## 산업화·민주화 다음엔 선진화다

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정책연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0여개 국책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회는 자체적인 정책연구능력이 제하여져 있는데다 국회의 정책연구능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회내 연구기능도 미약하다.

둘째, 정부의 정책연구기능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소는 단일이사회 체제로서 총리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각 부처 산하 체제에 비해서는 연구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정부측 인사와 이사회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책연구소 예산이 거의 전부 정부출연금과 정부용역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국책연구소의 연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사회현상은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다 전공 의사들이 협력 진료하여야 하는 복잡한 질병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책 연구소들은 대부분 한 개 분야에 전문화된 연구소로서 복잡다기한 사회현상을 여러 분야의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다전공 협력연구에는 부적합하다.

넷째, 대부분의 국책연구소들은 한 개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그 분야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주요 고객이며 예산 또한 해당 부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부처는 단기현안과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므로 국책연구소는 중장기 과제보다 단기현안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대학, NGO 등 민간부문의 정책연구가 최근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과 정보, 예산 등이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연구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전체의 정책능력을 높임으로써 '선진화' 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화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시스템개편방향은 첫째, 국회의 연구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회 산하 일부 연구소를 통합하여 국회로 이관하여 연구중심 종합연구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장기 과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회 산하 일부 연구소를 통합하여 국민경제문화의 또는 대통령실예에 두고 연구중심 종합연구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머지 연구소들은 정부용역연구소로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회의 해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자체적인 정책연구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필요한 정책연구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를 통해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간 정책연구 인력의 교류, 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부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종합연구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소 소장 임기를 적정하게 정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NGO 등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용역시장의 확대, 정책연구 생산자간 인력교류활성화, 정책정보의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광주시 수도권 기업 잇단 유치 기대 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지 기업의 광주 투자유치가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투자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11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15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15개 기업 가운데 11개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전자·금형·자동차 부품 등 광주의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외지기업의 잇단 투자유치는 광주의 비전과 활력을 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좋은 징후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확산돼 향후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광주는 아직 생산도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지역산업이 삼성 광전자와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광주에 투자로 한 기업 대부분이 자동차와 디지털 관련 업종이다. 그만큼 지역 제조산업기반이 취약한 것이다. 첨단비즈니스 서비스업과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창조형 성장동력 산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이번 투자유치도 수도권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보다 2배 늘린 것이 큰 몫을 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값이 싼 공장용지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서게 마련이다. 지역민과 광주시는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생활물가 가파른 상승세 대책 서둘러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는 서브 텍사스산 중질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철강가격을 비롯한 원자재와 밀, 콩, 옥수수 등 곡물가격도 치솟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은 국내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자정면 등 음식값이 오르면 이어 라면과 스낵, 주스류 등 식음료품 가격이 20일 큰 폭으로 인상됐다. 식음료품들은 원료가격과 제품 운송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는 3~4월까지 제품값을 순차적으로 올릴 방침이어서 가격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망도 밝지 않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한국은행 목표치를 넘어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21.2%의 상승률을 보였다. 치솟는 원자재와 곡물류 가격 등이 국내 물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57개월만에 처음으로 8억 6천만달러의 적자를 냈고 1월 적자는 33억8천만달러로 급증했다. 2월에도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건에선 새 정부가 목표로 삼은 연간 경제성장률 6% 달성은 어렵게 됐다.

물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서민들의 고통이 커졌고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과 물가관리, 국제수지 방어 등 새 정부의 경제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문제는 물가관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세계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고 '중국 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만만치 않다. 자칫 저성장의 기조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새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면 농촌에서는 한해 벼농사의 시작인 모내기 준비가 된다. 모심기로도 불리는 모내기가 보편화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에는 논에 물을 대고 바닥을 고른 다음 종자를 뿌리거나 물 없는 논에 종자를 살포하는 직파재배로 농사를 지었다.

이모작이 보편화됐던 80년대 이전만 해도 장마 전에 모내기를 마쳐야만 모그대로 논고 뜰새 없이 바빴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부엌의 부지깅이도 바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매년 이맘때면 치열한 날짜 다툼이 모판에서 벌어진다. 전국 첫 모내기라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올해 첫 모내기의 영예는 지난 1일 2개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모를 심은 이천시에 돌아갔다. 엄동설한은 아닐지라도 모내기 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

## 벼 조기재배



###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한 건물에 12개 교회'. 최근 LA에서 발간된 신문의 일면 표지 기사 제목이다. 한인교회가 2층에 5개, 3층에 3개, 4층에 3개 그리고 5층에 1개 라고 지적한다. 이곳 LA지역에서만 1천200개가 넘는 숫자의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한다. 이는 부흥으로 인한 밝은 현상이라고보다는 한인 기독교계의 어두운 단면이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 특유의 자기만이 '정통'이요, 상대방은 '이단'이라는 정죄로 인한 분열의 결과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기독교에서도 차이가 많다.

기준으로 삼는 사고방식을 가진 서양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믿는다'는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역사적·고고학적·과학적으로 확실히 믿을만한 근거들이 나열되었을 때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믿습니다'를 강조하며 믿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의 것은 '믿으려는 노력'이지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축복관'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인 것에 축복의 기준을 두는 경향이 많다. 기독교인으로

### 한 건물에 12개 교회

한국 기독교에는 미신적 요소가 많다.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강조한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믿음의 강조는 믿지 못할까의 반증이다. 어렸을 때에 헤어졌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당신이 내 어머니임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강조한다면 그 어머니는 '아, 이 아이가 나를 어머니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글썽 알아차린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심리학적으로는 맹신이요 미신인데 아마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한국의 미신적 풍토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판단의

씨의 기대가 질병의 치유나 사업번창 그리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정도이다.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차이는 '거듭남'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끼리 만나 인사하면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또는 무슨 교파냐는 것이 일반적인 질문인데 비해 미국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듭났습니까?"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그들과 대화해보면 '거듭남 기독교인이다',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경험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등 대답이 분분하다.

만약 한국인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아 드리고 그 질문자를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것 역시 한국인 특유의 '체면' 문제 때문이라 생각한다.

### 학교 급식도 트랜스지방 규제해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트랜스지방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현재 모든 식품제조업체에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5g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도 이 트랜스지방을 규제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서는 함유량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현재 학교급식법에서 전체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면서도 지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트랜스지방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가령 남자 고교생이라면 학교급식 중에서 지방을 통해 얻는 열량은 개정법령상 가니당 최대 270kcal까지 가능한데 무게로 환산하면 약 30g이 된다. 이것이 모두 트랜스지방 이더라도 개정법령의 기준이내이므로 규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급식업체들의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싼 기름을 넣어 튀김요리를 만드는 사례가 많아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지방은 극히 적은 양이라도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아직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제한량이나 권장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제는 법적으로 각 학교에서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각각 한도에 맞춰 총량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트랜스 지방도 규제하도록 하부속히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 기 고

### 정광 조



영광한 생각을 해 본다. 요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의 중요 인사의 인선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이 운동 난리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의 바탕 위에서 자기희생과 양보와 포용의 미덕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는 베풀지 않으면서 대우만 받으려 하거나, 등 뒤에 비수를 꽂아놓고 상대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없었는지 화합차원에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어딘가 구차스럽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지역의 민의는 밝혀졌고 언론도 민심과 함께 붓 끝이

어 있지만,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었다고 용감하게 고백한 또 다른 호남 사람은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는가. 굴지의 대기업이나 전국의 여러 기업들에 재직하고 있는 호남민의 아들과 딸들이 좌불안석이고 왕건의 '훈요십조'까지 거론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답답해진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 때때로 출범하는 새 정부 인사에서 특검조사까지 받고 있는 그 회사의 저간의 사정이 전혀 무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의 인사 실무자들이 호남은 표는 주지 않았지만 지역민들이 정의롭고 의로우며 민주의 성지로서 마땅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 인사에 지역안배를 운운하는 것

### 먼저 마음을 열자

움직였거나 앞서 갔음에야 이제 와서 내 뒤통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일은 투정이라 생각되어 부끄럽다.

새 정부 인수 과정에서도 잘하는 일은 박수도 쳐주고 건설한 비판을 수반해야 할 것인데 도무지 협조적 태도가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다.

지역의 변화된 민심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권에서 한직 정관한 두 자리 받는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거나 중앙 요로의 지역인재가 당장 반사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고사되는 것은 아닐진대 너무 호들갑스럽다. 그동안 한마평이 나왔었던 훌륭한 분들도 우리나라 장관의 수명이 1~2년 이라면 새 정부에서 탈락될 기회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기우이겠지만 영광한 면에서의 약재도 더욱 고립을 자초했다고 본다. 요즘 모면호사와 옛날 모감사편은 양심을 팔수 없었다는 이유로 포장지 잘피

도 우스꽝스럽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믿을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쓴다는데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여러가지 반대논리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공허할 뿐이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자기 사단을 이끌고 워싱턴에 입성한다고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참여정부가 코드인사를 했다면 새 정부도 어떤 기준에 따라 인사정책을 펼 것이냐고 그렇다고 시비할 일이 아닐 것이다.

새 정부가 인사에서 확대를 하였으니 지역발전도 소외될 것이라는 논리도 옳다. 행여 지역감정 문제를 운위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영남출신은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의 마음으로 동서화합을 위해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새 정부에 표는 주지 않았지만 마음부터 열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옳다. 주는 것 만큼 받는 것이 아닌가. <전 광주시장 공무원>

### 졸업식 꽃다발 지나친 포장 오염 불러

졸업 시즌을 맞아 꽃다발 사용이 늘고 있다. 자녀가 학창생활의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나 친지가 꽃다발을 사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꽃다발을 지나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줄였으면 한다.

가령 장미꽃을 한다발 살 경우 꽃 한 송이 송이마다 비닐을 씌운다든지, 꽃포장을 세 겹 네 겹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기에 좋지만 집에 가져가 보면 포장지는

재활용도 할 수 없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이며 환경오염인가.

따라서 선물할 때 꽃포장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꽃다발과 한 장 포장으로 간단하게 하자. 그대로 화병에 꽂으면 되도록 말이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쓰면 자그마한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자연보호,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7-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이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